

펩트론, 파킨슨병 치료제 'PT320' 국내 식약처 치료목적 사용승인

▶ PT320 국내 2상 진행 중...연내에 결과 발표 예정

[2022-06-27] 펩트론(대표이사 최호일, 087010)은 GLP-1 계열 파킨슨병 치료제 PT320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'치료목적 사용승인'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.

'치료목적 사용승인'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가 대체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자 등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품목허가를 받기 전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. 해당 제도는 임상시험을 승인 받은 의약품에 한해 미국,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.

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"PT320 은 현재까지 알려진 GLP-1 계열 약물 중에서 혈뇌장벽(BBB) 투과율이 가장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체중 감소율도 낮아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매우 적합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"며 "이번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통해 국내에 신약이 공급되기 전까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전했다.

한편, 펩트론은 금번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은 파킨슨병 치료제 'PT320'으로 국내 임상2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임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.